

손해보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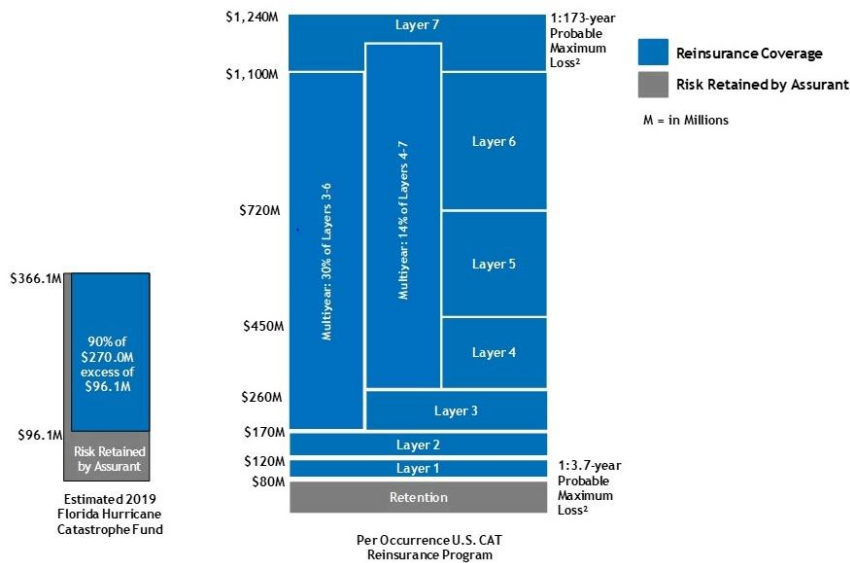
Analyst **설용진** s.dragon@sks.co.kr / 3773-8610

SK증권 리서치센터

LA 산불 Comment

- LA지역 산불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미주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손보사에 대한 우려가 가중
 - DB손해보험, 코리안리 등 영향 예상되나 재보험 출재 감안할 때 이익체력을 훼손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
 - 전일 DB손해보험 주가 하락은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. 낙폭 과다에 따른 저가매수 관점의 접근 유효
- LA지역 산불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미주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손보사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
- 최종 손실 등에 대한 파악은 필요하겠지만 DB손해보험의 익스포저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도 일부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. 현대해상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삼성화재도 지분을 보유한 캐노피우스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보수적인 언더라이팅 기조를 감안했을 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전망
- 일반적으로 이번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의 경우 Event XoL로 재보험 출재가 이루어지며 Excess Point까지는 원보험사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재보험사가 보장하는 구조. DB손해보험의 경우 Excess Point를 감안했을 때 최대 약 5~600억원 수준의 손실이 예상되며 코리안리도 약 1~2천만 달러(약 150억~300억원) 수준으로 손실 추산. 복원보험료 등 추가적인 지출이 일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이익체력을 훼손할 수준은 아닐 것으로 추정
- 전일 DB손해보험의 주가는 해당 우려 영향으로 8.12% 하락. 25년 실적에 관련 해당 산불로 인한 손실, 재보험 거래 등에 따라 일부 영향이 발생하겠지만 동사의 장기보험 중심 양호한 지표를 감안했을 때 전일 낙폭은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. 자본력이나 주주환원 측면의 매력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낙폭 과다에 따라 저가매수 관점의 접근 유효하다고 판단

대형 재해 재보험 구조 예시



자료: Allstate, SK증권

Compliance Notice

-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투자판단 3 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